

2019년



해외출장 가이드

불가리아 소피아 출장자료

【 목 차 】

I. 불가리아 국가 개요	1
II. 불가리아의 최근 정치, 사회, 경제동향	4
III. 한-불가리아 간 교역 및 투자 동향	11
IV. 불가리아 시장특성 및 유의 사항	14
V.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18
VI. 현지 유관기관 안내	27
VII. 무역관 안내	28
VIII. 참고사항(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29





I. 불가리아 국가 개요

1. 일반 개황

- 국 명 : 불가리아(The Republic of Bulgaria)
- 국 기 :  (흰색 : 평화 · 순수, 녹색 : 자연, 빨간색 : 용맹 · 믿음)
- 위 치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동부에 위치
(루마니아, 그리스, 흑해, 터키,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와 접경)
- 면 적 : 110,993평방km (한반도의 약 1/2, 유럽국가 중 15번째 규모)
- 수 도 : 소피아 (SOFIA), 인구 130만 명
- 주요도시 : SOFIA(130만 명), PLOVDIV(34만 명), VARNA(34만 명),
BURGAS(21만 명), STARA ZAGORA(16만 명), RUSE(16만 명),
- 인 구 : 700만 명 (2018년 기준)
- 1인당 GDP : US\$ 8,700 (BGN 14,176) (2017년 기준)
- 언 어 : 불가리아어 (상용어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불어)
- 종 족 : 불가리아 계 570만 명(82%), 터키계 70만 명(10.1%), 집시 40만 명(5.8%),
기타(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블라크인 등) 13만 명 (2.1%)
- 종 교 : 불가리아 정교 85%, 이슬람 13%, 카톨릭 1%, 기타 1%
- 기 후
 - 대륙성기후로 사계절이 있으며 연평균기온은 섭씨 10.5도
 - 지역적으로 중앙의 발칸산맥을 경계로 남부 평야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북쪽은 대륙성 기후
 - 우리나라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하나 겨울에는 눈이 좀 더 많고 추우며 여름에는 습도가 낮아 무더운 날씨가 적음
- 화폐단위 : 레바(Leva, BGN으로 표기)
- 환 율 : EUR 1 = BGN 1.95583(고정환율)
- 시 차 : GMT+2 (한국보다 6시간 늦음, 3.30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 정부형태 : 의회 민주주의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
- 대 통 령 : Rumen Radev(2017.1.19. 취임, 임기 5년)
- 총 리 : Boyko Borisov(2017.5.4. 취임, 임기 4년)
- 정부성향 : 중도 우익, 친 EU, 친 NATO, 친미, 친독



2.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 GDP	BGN백만	83,756	88,575	94,130	101,043	107,925
GDP 증가율	%	1.3	3.6	3.9	3.8	3.1
1인당 GDP	BGN	11,594	12,340	13,206	14,176	15,312
환율	BGN/USD	1.61	1.79	1.86	1.63	1.72
재정 수지	BGN백만	-3,073	-2,485	1,468	846	137
- 세입	BGN백만	29,409	32,200	33,959	35,317	39,646
- 세출	BGN백만	32,482	34,685	32,491	34,471	39,509
무역 수지	EUR백만	-4,021	-3,374	-2,055	-2,370	-3,921
	% GDP	-9.4	-7.5	-4.3	-4.6	-7.1
- 수출(FOB)	EUR백만	22,105	22,982	24,126	27,916	28,247
- 수입(FOB)	EUR백만	26,126	26,357	26,181	30,286	32,168
경상수지	EUR백만	531	-15	1,244	3,368	2,657
	% GDP	1.2	0.0	2.6	6.5	4.8
외환보유고	BGN백만	35,011	40,677	49,748	51,737	56,068
외채	EUR백만	39,338	33,493	34,221	33,397	33,797
	% GDP	92.0	74.0	71.1	64.6	61.4
인구(연말)	만 명	720	715	715	705	-
소비자 물가상승률	%	-0.9	-0.4	0.1	2.8	2.7
이자율	연%	0.03	0.01	0.00	0.00	0.00
실업률(연말)	%	10.7	10.0	8.0	7.1	6.1
임금(월평균)	BGN	822	878	948	1,037	1,135
외국인 직접투자	EUR백만	347	2,399	1,003	1,390	795.4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www.nsi.bg),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Bulgarian National Bank ; www.bnb.bg)



3.한-불가리아 관계

체결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11. 발효) ○ 문화협정(94.4. 발효) ○ 사증면제협정(94.8. 발효) ○ 항공협정(95.2.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95.6. 발효) ○ 무역협정(96.6. 발효) ○ 해운협정(2005.11 발효) ○ 투자보장 협정(2006.11 발효) ○ 청소년 분야 협력 약정(2007.12 서명) ○ 군사기밀보호협정 (2009.10 서명)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2010. 3.)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2011.9 서명) ○ 국방협력, 과학기술협력, 교육문화 협력 MOU(2015.5 서명)
교역규모	○ 2018년 - 對불가리아 수출: US\$ 1억 7,434만 - 對불가리아 수입: US\$ 1억 7,942만 - 무역수지 적자: US\$ 508만 ○ 2017년 - 對불가리아 수출: US\$ 1억 3,741만 - 對불가리아 수입: US\$ 1억 5,422만 - 무역수지 적자: US\$ 1,681만
주요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 합성수지(PET), 승용차, 타이어, 기타전자응용기기, 연피 및 스크랩, 음료, 폴리에스테르 섬유, 경작기계,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 우리나라 수입 - 곡류, 동조가공품, 식물제외류, 계측기, 배전부분품, 편직제 의류, 수산가공품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직접 투자(2018년 8월 기준) - 투자신고기준 : 총 132건, 신고법인 수 : 26 - 투자금액: 2억 2,565만 달러 ○ 불가리아의 대한 투자 : 3건, 5만 5천 달러
교민	○ 약 218명(공무원, 지상사원, 선교사, 유학생, 자영업자 등) ○ 한인회 회장 : 이승주 - 휴대전화 : +359-(0)879-991-343 - 이메일 : koreans.bulgaria@gmail.com

자료원 : 불가리아 정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II. 불가리아의 최근 정치, 사회, 경제 동향

1. 최근 정치·사회 동향

□ 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

- 2019년 2월 14일, 불가리아 국회는 기존의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99, 반대 55로 통과시켰으며, 올해 5월 EU 의원선거와 10월 지방 시장 선거부터 적용됨.

* 선호투표제 :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

- 그 동안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들 중에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 하던 방식에서 선호하는 정당에게만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이 개정됨. 동 선거법 개정안은 현 집권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과 시민권리자유 운동(MRF)이 주도함.
- 아울러,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계산기(Voting machine) 도입도 포함됨.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계산기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불가리아, 2018년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 수행 완료

- 2009년 리스본 조약에 따라 3개 회원국이 'Trios'를 이루어 에스토니아(2017년 하), 불가리아(2018년 상), 오스트리아(2018년 하) 순서로 2018년 1~6월까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함.
- EU 이사회 의장국의 역할
 -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EU 전체의 이익실현을 도모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 사실상 대부분 중요한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유럽의회와 협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함.

- 의장국 기간 중 주요 논의 주제
 - EU의 고용, 성장과 경쟁력에 대한 전략 설정이 가장 강조되고 있음.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EU 또한 경제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줄어드는 추세
 -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과 강한 에너지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극단주의, 난민, 이민자 정책 등의 수립 및 정의 구현으로 EU의 안전보장을 위한 상호 협조와 협력적인 대응을 통한 안보 위험, 도전에 대응
 - 외교 안보에 대한 공동 전략 수립 및 유럽 시민들의 안전 보호와 차별 금지

□ EU 기금 집행실적 현황

- 불가리아 정부는 2014~2020년 기간 동안 EU로부터 지원 받는 기금은 구조, 결속, 지역개발로 Operational Program이라고 불리며 크게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에 농어촌개선을 비롯한 난민시설, 내부보안, 식품개선, 환경보호, 기후변화, 낙후지역개발을 포함하여 총 15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음.
- 2019년 7월말 기준, 불가리아의 EU 기금 수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불가리아 정부가 EU 집행위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금액은 82.9억 유로로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함. 2020년까지 승인받기 위해 실적이 저조한 분야를 위주로 입찰 절차를 가속화할 계획임.
 - 승인받은 EU 기금 82.9억 유로 중 실제 집행금액은 38.1억 유로로 32%에 불과함. EU 기금 집행을 저조의 주된 이유는 지자체의 관료주의와 입찰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능력 부재 및 EU 규정 위반 사례 등이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임.

[2단계 OP, 불가리아 EU 기금 수혜 현황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배정액			EU 기금 집행실적 (승인 기준)	
	합계	EU 기금	정부예산	승인금액	집행률
총 계	11,917	10,026	1,890	8,290	69%

교통개선	1,887	1,604	283	1,575	83%
환경개선	1,770	1,505	265	1,061	59%
지역개발	1,543	1,312	231	1,351	87%
혁신.경쟁력강화	1,321	1,123	198	1,014	76%
과학.교육강화	701	596	105	476	67%
인력개발	1,092	939	153	876	80%
공공행정강화	334	284	50	205	61%
중소기업육성	102	102	-	102	100%
구조결속지역개발기금 합계	8,752	7,465	1,287	6,663	76%
어촌개선	113	88	25	67	59%
농촌개선	3,052	2,474	578	1,559	51%
농어촌개선기금 합계	3,165	2,562	603	1,626	51%

자료원: EU 기금 정보관리 사이트(<http://2020.eufunds.bg/en/0/0/Implementation>)

□ 2017년 제 44기 정부 출범 의의

- 2016년 11월 제 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당시 야당이었던 사회당(BSP)이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나, 2017년 총선에서는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제 1당이 됨
- 대통령 선거 이후 내각 총 사퇴로 2016년 말 ~ 2017년 초까지 행정공백이 불가피 하였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신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짐
- 제 44회 총선 결과 유럽발전시민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지만, 친 EU·중도 우파 성향인 애국연합(UP)과 연립정부 구성
- 총리는 보이코 보리소브(Boyko Borisov)가 당선 되었으며 과거 2차례 총리직을 수행한 경험으로 능숙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음.

[44대 총선 결과, 각 정당별 득표율]

순위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1	유럽발전시민당(GERB)	32.65	95
2	사회당(BSP)	27.20	80
3	애국연합(United Patriots)	9.07	27
4	시민권리자유운동(MRF)	8.99	26
5	의지(Bolya*)	4.15	12

주 : *볼라, 불가리아 말로 의지라는 뜻, ** 불가리아 전체 의석 수 240석

자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ntral Electoral Committee)



□ 국가신용도 유지

- 2017년 12월 1일 Standard & Poor's, Fitch는 불가리아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림
 - S&P는 불가리아 외분부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A-3로 올림
 - * 2014년 12월 12일 S&P가 BBB-/A-3에서 BB+/B로 한 단계 강등시킨 후 2017년에 회복됨
 - Fitch는 BBB-/F3에서 BBB/F2로 한 단계씩 올림
 - 2014년 상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파산, FIB(First Investment Bank)의 유동성 확보 문제 등 재정악화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
 - 2015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3%로 안정화되었고, 재정건전성 검토 시행 등 위험성 완화 노력 결과 2017년 12월 주요 기관은 신용등급을 2014년 수준으로 상승시킴

<불가리아 신용등급>

기관	일자	외화 표시(Foreign Currency)			현지화 표시(Local Currency)		
		장기	단기	전망	장기	단기	전망
S&P	2018. 6. 1	BBB-	A-3	Stable	BBB+	A-3	Stable
Fitch	2018. 6. 1	BBB	F2	Stable	BBB	-	Stable
Moody's	2018. 6. 1	Baa2	Baa2	Stable	Baa2	-	Stable

* 자료원 : 불가리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EU, 불가리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2014년 12월 4일, EU 집행위원장 클로드 융커는 불가리아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협력 검증 메커니즘(CVM)을 통해 불가리아의 사법제도 개혁과 부패 및 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고 밝히면서 2019년 안에 불가리아를 CVM 관찰 대상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언급함.
 - EU는 2007년 불가리아의 EU가입 이후부터 사법제도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이행 실적이 미미한 수준임. 2019년 CVM 관찰 대상국에서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EU 기금을 활용한 공공부문 사업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EU의 감시와 수정보완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불가리아의 하수처리 및 물공급(Water Supply)개보수 입찰이 EU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2013년 수처리 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프로젝트가 한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음. 중단 요인은 입찰 추진 과정에서 불법 및 불공정 사례 적발, 관련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절차, 변칙적인 마감기한 연장,



잘못된 예산 배정 등 EU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임.

- 이처럼 EU는 불가리아 정부를 향하여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 부정부패 척결, EU 규정 이행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임.

3.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경제성장률

- 2018년 GDP 성장률은 3.1%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이후 3.0% 이상 성장률 유지

GDP 성장률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0.9	1.3	3.6	3.9	3.0	3.1	2.9

자료원 :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물가상승률

- 2018년까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 임금수준 향상 및 실업률 감소에 기인함.

물가상승률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물가상승률(%)	0.9	-1.4	-0.1	-0.8	2.1	2.7	2.6

자료원: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실업률 및 임금상승률

- 경기 회복세에 따라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하지만, 실업률 감소는 이민, 출생률 저하 등 불가리아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가능 비율이 증가하지 못한 이유도 있음
- 2019년에도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EU 기금유입을 통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확충 등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560레바



(약 286EUR) 수준 임

실업률 및 최저임금액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업률(%)	11.8	10.7	10.0	8.0	7.1	6.9	5.0
최저임금액(BGN)	310	340	380	420	460	510	560

자료원: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환 율

- 불가리아는 1997년 6월 IMF에 의해 재정금융정책이 통제를 받아왔으며 당시에는 독일의 마르크화와 불가리아의 레바화(BGN으로 표기)를 일정비율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Currency Board)를 채택함. 이후 1999년 6월 EU 통화개혁에 따라 마르크화 대신 유로화를 기준통화로 사용하게 됨.
- 불가리아의 통화인 레바는 1999년 6월부터 EU 통화개혁에 따라 1유로=1.95583 레바로 고정되었으며 이 고정 환율은 2019년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 불가리아가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고정환율제를 지속 유지
- 유럽 경기침체의 영향과 유로화 약세로 달러대비 레바화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평균 환율은 1달러 = 1.71레바 수준으로 지속적인 달러 약세가 유지되고 있음.

환율 추이 (달러대비 레바화 환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연말기준)	1.42	1.61	1.79	1.86	1.63	1.71	1.73

자료원 :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2018년 7월 유럽 집행위는 불가리아가 2019년 ERM II*에 가입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승인, 당초 2019년 6월까지 실행계획을 추진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 될 것으로 보임.
- * 환율조정제도(ERM II):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조절 장치. 자국 통화와 유로화의 변동폭을 $\pm 15\%$ 로 제한함. 불가리아가 ERM II에 가입한 후 최소 2년 이상 현지화 레바(Lev)와 유로화 간 적절한 환율을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유로존 가입이 가능함



☐ 재정수지

- 불가리아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2016년 이후 연속 3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불가리아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BGN백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정수지	-1,441	-3,073	-2,485	1,465	845	137
(세입)	28,977	29,409	32,199	33,959	35,315	39,646
(세출)	30,418	32,482	34,684	32,494	34,470	39,509
% GDP	-1.8	-3.7	-2.8	1.6	0.8	0.1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무역 및 경상 수지

- 2018년 기준, 불가리아의 수출은 283억 유로, 수입은 322억 유로로 약 39억 유로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불가리아 무역 및 경상수지 추이

주요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역 수지	EUR 백만	-3,557	-4,021	-3,374	-2,055	-3,504	-3,921
- 수출(FOB)	EUR 백만	22,272	22,105	22,982	24,126	26,706	28,247
- 수입(FOB)	EUR 백만	25,828	26,126	26,357	26,181	30,210	32,168
경상수지	EUR 백만	536	35.1	-16.9	2,562	1,980	2,657
무역수지/GDP	%	-8.5	-9.4	-7.5	-4.3	-6.9	-7.1
경상수지/GDP	%	1.3	0.1	0.0	5.3	3.9	4.8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III. 한-불가리아 간 교역 및 투자 동향

1. 한-불간 교역 동향

- 2018년 기준 3.5억불,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1% 증가하였음.
- 수출은 1억 7천만 불(27% 증가), 수입은 1억 8천만 불(16% 증가) 기록

연도별 우리나라 對 불가리아 무역 추이

(단위: 미\$천)

연도	對 불가리아 수출입		
	수출(FOB)	수입(CIF)	무역수지
2018	174,344	179,430	-5,086
2017	137,416	154,226	-16,810
2016	134,652	102,126	32,526
2015	107,688	101,716	5,972
2014	117,808	190,088	-72,280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실적

- 한국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PET), 승용차, 기타전자응용기기, 연괴및스크랩, 폴리에스텔섬유, 음료, 타이어, 축전지, 전기자동차, 경작기계 등임.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의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실적

(단위 : 미\$천, %)

순위	품목명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37,416	2.1	174,344	26.9
1	합성수지	35,774	17.4	50,584	41.4
2	승용차	17,103	4.9	18,288	6.9
3	기타전자응용기기	12,749	35.2	14,235	11.6
4	연괴및스크랩	8,527	-45.3	10,897	27.8
5	폴리에스텔섬유	8,417	36.5	7,247	-13.9
6	음료	4,035	198.7	6,046	49.8
7	타이어	5,075	-13.6	5,698	12.3
8	축전지	4,433	3.4	5,226	17.9
9	전기자동차	417	127.2	5,041	1,109.7
10	경작기계	2,379	46.5	3,578	50.4

주 : MTI 4단위 기준 /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실적

- 한국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은 곡류, 배전부분품, 식물제의류, 동조가공품, 계측기, 기타수산물가공품, 동괴및스크랩, 의약품, 편직제의류 등임.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실적

(단위 : 미\$천, %)

순위	품목명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54,226	51.0	179,430	16.3
1	곡류	3,772	9,716.3	30,901	719.2
2	배전 부분품	1,549	-80.5	24,724	1,495.8
3	식물제의류	13,529	18.1	19,364	43.1
4	동조가공품	19,354	689.9	16,125	-16.7
5	계측기	5,688	18.6	8,446	48.5
6	기타수산물가공품	10,534	21.2	8,030	-23.8
7	동괴및스크랩	0	-100.0	5,812	32,286,377
8	의약품	3,376	-14.4	5,148	52.5
9	편직제의류	4,500	33.9	4,916	9.2
10	연초류	5,688	1.3	4,861	-14.5

주 : MTI 4단위 기준 /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2. 한국의 對 불가리아 투자 동향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對 불가리아 직접투자는 신고건수 132건, 투자금액은 약 2억 2,565만 달러를 기록함.
- 한국의 주요 對 불가리아 투자진출 업체로는 현대중공업이 변압기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남동발전과 에디스엔의 합작투자로 태양광발전소 준공 및 운영 중
- 2018년에 들어, 산업용장갑 생산업체, 나이키 신발 OEM 업체 등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불가리아를 투자적합지로 고려하고 있음.

한국의 對 불가리아 투자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신고건수(건)	24	41	31	22	5	-	4	2	2	1	132
신규법인(건)	10	3	9	1	-	-	2	-	1	-	26
신고금액 (US\$천)	121,080	36,727	85,227	34,408	4,348	-	207	204	591	245	282,583
투자금액 (US\$천)	67,597	36,120	57,148	59,681	4,372	-	171	45	273	246	225,65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IV. 불가리아 시장특성 및 유의 사항

1. 시장 규모 및 특성

- 불가리아의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약 700만 명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미화 약 7,000 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며 따라서 구매력이 취약하며 대다수가 빈곤함.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미화 600달러 수준임.
- 지하경제규모가 공식 경제규모의 34%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현금거래, 소량 구매 등 여러 가지 탈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업체와의 교신

- 인터넷, Wi-fi 등 통신 인프라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잘 갖추어져 있어 업체와의 유선 통신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이메일의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대용량의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3. 휴가 시즌

- 7-8월은 대부분의 소규모 업체가 1개월 정도 휴무하며 대체로 7월 중순이후 8월말까지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및 연락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성탄절 이후 1월 6일까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휴무함.
- 부활절 연휴(4월 말~5월 초), 5월 초(5.1 노동절, 5.6 성 게오르기의 날) 연휴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휴무함.



4. 가격조건 제시

- 불가리아의 주요 항구는 바르나(Varna)이며 통상적으로 Varna 항구까지의 운송 조건에 의한 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즉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CFR Varna 또는 CIF Varna 조건으로 제공 요망.
- 2018.3월 기준, 불가리아 주요 항구까지의 해상운임
 - * 20'FT(1,450달러), 40'FT(2,200달러), 40'HQ(2,200달러)
- 가격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산정 요망. 불가리아의 화폐인 레바(Leva:BGN)는 유로화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1유로 = BGN1.95583) 현지인들은 대미 달러화 결제보다 유로화로 결제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가 가능함.

5. 최소 주문량 제시

- 불가리아의 주요 수입상들은 필요시 서유럽으로부터 소량 수입 공급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시장규모(인구) 및 구매력(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주문량을 신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결제조건 제시

- 불가리아의 경우 대부분의 바이어는 T/T 결제를 선호하며, 보통 선금 30%, 선적 후 (선적서류 사본 송부 후) 70% 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결제금액이 크거나 대량 원자재 수입의 경우, L/C(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의 현지 수입업체들은 L/C 개설에 따른 은행 수수료 지불 및 절차상 불편을 이유로 T/T 결제를 선호함.
- 일부 사전 송금 후 잔금 결제 시, 결제조건에 대해 보다 신중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임.



7. 상담 시 주의 사항

1) 동등한 입장에서 상담

- 국민소득수준이 낮다고 경시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릴 것
- 사업 파트너로서 구매력에 관계없이 진실하게 상담

2) 수출가능성과 함께 시장동향 파악도 중시

- 시장규모, 경쟁관계 등에 대한 파악을 사전에 할 것
- 시장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것
- 단기적인 측면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3)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 금융부문의 취약성 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파악 필요
 - ※ Unicredit Bulbank, UBB 등 비교적 건실한 은행과의 거래 유도
-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는 반드시 확인 필요
- 대형설비의 경우 공급자 신용 제공이 필요
 - ※ 수출입은행 : UBB 등과 전대자금계약체결 추진 중
- 거래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 분쟁 발생 시 재판 등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 장기간 소요

4)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사후 관리 철저

- 상담 중 너무 쉽게 약속을 하지 말 것
 - ※ 샘플 무료 제공, 즉시 추가자료 제공 등
- 상담 중 약속 내용에 대한 기록 철저 및 사후 관리 필요
 - 상담 후속 조치 내용은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해당 업체에 사유를 통보

5) 현지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노력 필요

- 키릴문자를 발명한데 대한 자부심이 강함.
- 선사시대 유적 등 다수 존재
 - 유네스코지정 문화유산(9개) 및 자연경관 우수(12 국립공원)



- 비잔틴, 터키 등 장기간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강자에 굴복, 명분보다 실리에 기민
 - 서양 식사 예절 등에 대한 관심 필요
 - 불가리아는 독한 술(라키아)로 시작
 - 입안에 음식을 넣은 상태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 스프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아야
 - 불가리아의 독특한 제스처
 - 긍정(예;DA)시 고개를 좌우로
 - 부정(아니요;NE)의 경우 고개를 아래위로
- ※ 제스처보다는 음성(예, 아니요)을 잘 들어야 함



V. 현지 체류 시 참고 사항

1. 비자

-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단기사증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일반)이 94. 8월 체결되어 관광객은(90일 이내 체류) 비자가 면제됨.

2. 면세 반입 가능 물품

- 주류 : 위스키 류 1리터, 포도주류 1리터
- 담배 : 200개피
- 향수 : 50ml
- 커피 : 200g
- 기타 물품 가격 : 날 개당 50유로 이하 1인당 100유로 이하
- 현금 : 20,000레바(약 10,000유로 상당) 이내
 - ※ 1인당 현금 소지액이 20,000레바(약 1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 세관에 미신고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 현금 압류 조치 및 구금될 가능성이 있음.

3. 통관 시 주의점

- 견본을 지참하는 경우 ATA Carnet 증명서 소지.
 - 전에 무역사절단 일원으로 당지를 방문한 업체가 견본으로 안경테를 다량 지참했음에도 불구하고, ATA Carnet을 지참하지 않아 공항 출입 시에 상당한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음.
- ATA Carnet 지참이 어려울 경우 인보이스라도 작성해서 지참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보다는 나으나 이 경우 입국 시 적발되면 관세와 부가세(20%)를 물어야 함.
- 세관검사에서 미신고사항 적발 시에는 벌과금 등이 매우 높으므로 세관원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음.



4. 택시 이용 시 유의 사항

- 소피아 공항 도착 후, OK 택시 정류장으로 반드시 이동하는 것이 좋음. 공항에 별도의 OK 택시 정류장이 있으며 다른 출구에서는 공식적인 정류장은 없음.
- OK 택시에는 OK 택시마크와 전화번호 9732121 번호가 전면에 부착되어 있음. 불법 택시의 경우 OK 택시의 로고와 번호를 도용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함.
-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 보통 10유로 정도 선이며, 특히 야간에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시에는 운전자들이 별도의 팁을 요구할 수 있어 넉넉하게 15유로 정도를 주면 호텔까지 잡음 없이 도착 가능함.

[공항 입출국장 OK 택시]



- 시내에서는 OK 택시(9732121) 이외에 Yello 택시(91119)가 가장 안전하며, 최근 Taxi Me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택시 이용 가능

5. 환전 시 유의 사항

☐ 화폐 단위

- 불가리아 화폐단위는 레바(Leva)이며 지폐는 100, 50, 20, 10, 5, 2, 1 레바가 있고 동전은 1레바, 50, 20, 10, 5, 2, 1 스토틴키(Stotinki)가 있음.
- 불가리아의 화폐는 BGN으로 표기하며 읽을 때는 ‘레바’라고 함.



□ 환율

- 불가리아 화폐(BGN)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으며 1유로는 2레바 정도로 생각하면 됨.
 - 고정 환율 : EUR 1 = BGN 1.95583
 - 레바의 달러화 환율은 해당 사이트(www.unicreditbulbank.bg)에서 확인
- 불가리아 중앙은행에서 매일 당일 중앙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나 민간은행의 경우 시세에 따라 하루 중에도 환율이 변동됨.

□ 환전

- 환전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내 일반 환전소에서 가능하며, 은행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을 요구함. 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로부터 환전하지 말아야 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의 경우 위폐나 신문조각 등을 이용하여 속이는 경우가 많음.
- 민간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에 환전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환전증명서상의 적용 환율 및 수수료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서명하여야 함. 환전 증명서상 환율 및 수수료 등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 실제 환율 적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소액 환전 시에는 투숙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6. 대중교통

○ 메트로 (지하철)



불가리아에는 수도인 소피아에만 2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으며, 그 중 2호선은 2012년 8월에 새로 개통됨.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은 소피아 센터에 위치한 '세르디카'역임.

요금: 1.60레바(약 1,100원)

운행시간: 05:30AM~11:30PM

○ 버스



전동버스와 일반버스 2종류이며, 버스표는 거리의 신문·잡지 가판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운전기사에게 구입도 가능함. 승차 후 차 안에 설치된 개찰기에서 반드시 수동으로 개찰해야 함.

요금: 1.60레바(약 1,100원)

운행시간: 05:00AM~11:00PM

○ 전차(트램)



시내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며, 승차 전 정류장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운전석에서 구입 후 전차 안에 설치된 개찰기에 개찰하여야 한다.

요금: 1.60레바(약 1,100원)

운행시간: 05:30AM~11:00PM

○ 택시



택시 요금은 자유화되어 있어 택시 회사마다 다르므로 승차 시에는 유리창 앞에 적혀있는 요금 체계를 확인 필요

기본요금은 택시 유리창에 부착되어있는 요금표의 가장 윗줄에 표시된 금액이 km당 요금으로 0.79 레바(평상시 요금)나 0.90레바(야간 할증 요금)로 되어 있는 택시를 탑승

OK 택시 또는 옐로우 택시 사용 권장.

OK, YELLOW 택시 마크와 전화번호 9732121, 91119 번호 부착 확인 요망

7. 현지 기후 및 용이한 복장

☐ 기후

- 불가리아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이며 계절별 기온도 유사함.

8. 현지 물가 및 치안 상황

☐ 물가수준

- 일반적인 음식은 15유로 이내에서 먹을 수 있음. 이 경우 스프나 샐러드, 주 음식, 디저트 등 코스 요리를 포함함.
- 인건비도 비교적 낮아, 택시비 등이 저렴한 편임.
- 한국식당 음식의 경우 찌개종류가 13유로 내외이며, 술 등의 경우 비교적 가격이 높음.



□ 치안 상황

- 불법, 탈법 행위가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신체적인 위해 사건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복잡한 시내, 대중교통, 공항 등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소지품에 신경을 써야 함. 가능하면 귀중품이나 여권 등 중요 서류는 호텔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내를 걸어 다니는 경우 혼자 행동하지 말고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가리아에는 집시가 비교적 많으며 이들이 시내에서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지갑을 뺏는다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금 및 귀중품 등은 호텔의 сей프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갑 등을 휴대할 경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함.

9. 전기 규격

- 220V, 50Hz의 전기가 공급됨.
- 콘센트는 원형 2핀이므로 우리나라 사용하는 기기를 휴대하는 경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음.

10. 관습상 유의 사항

□ 봉사료

- 서유럽과 같이 봉사료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호텔 포터, 청소부 등에게 2레바(1유로 정도)의 봉사료를 주는 것이 좋음.
- 식당의 경우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고급 식당의 경우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 불필요함.
- 식당이나 택시 등의 경우 동전은 거슬러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식당, 택시 이용 시 1레바 이하의 잔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차하시기 바람.



□ 기타 문화관습

- 식사 시에는 먼저 독주(라키아라고 부르는 40도짜리 과일주)와 샐러드를 먹으며 주 음식을 먹게 됨. 샐러드와 주 음식 사이에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먹기도 함. 주 음식 후에는 후식을 먹거나 후식과 함께 커피나 차를 마심.
- 건배를 할 때는 잔을 보지 않고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잔을 부딪치게 함.
-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긍정(예)이며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는 경우 부정(아니요)이므로 혼동 하지 말아야 함.

□ 집시

- 불가리아 정부는 집시 인구가 전체의 4% 정도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 8%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들은 거리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폐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수집해 가는 등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시내를 중심으로 곳곳에는 집시들이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음. 이들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함.

□ 주요 관광지

- 릴라 수도원(Rila Monastery)



발칸 반도에 있어서 정교 수도원의 총 본산으로 10세기에 최초 건축되었으나 현재 모습은 19세기 중반 보수 및 개축된 모습이다. 정교한 건축술, 벽화, 성화, 고문서, 나무 십자가로 유명하다. 불가리아 내 9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 벨리코 투르노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양트라 강과 접해 있는 도시, 벨리코 투르노보는 과거 제 2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로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다. 과거에는 ‘투르노보’ 라고 불렸으나 그 역사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 1965년 도시 이름 앞에 ‘벨리코(큰, great)’라는 형용사를 붙여 오늘날 ‘벨리코 투르노보’라고 불리게 되었다. 도시 안에는 제 2차 불가리아 제국 시기에 설립된 요새가 돋보인다.
※ 소요시간 : 소피아에서 약 2시간 반 거리

○ 차레베츠 성



벨리코 투르노보(11~14세기 불가리아의 수도)의 5000년 역사의 일부분이다. 4200BC, 청동기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1985년, ‘Sound and Light’ 이라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성곽에 빛과 사운드 효과가 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플로브디프



○ 고대 원형극장

불가리아 제2의 도시로서 로마시대의 원형극장과 구 도시(old Town)가 보존되어 있다. 원형극장은 현재까지도 콘서트나 다른 행사에 쓰이곤 하며, 5,000명~7,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 소피아 시내 관광



○ 성 게오르기 교회

쉐라톤 호텔의 정원에 있는 소피아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이다. 3~4세기경 이교도 사원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며 로마 시대에 교회로 사용되다가 터키 지배 시에는 회교사원으로 사용되었다.



◦ 법원 건물

1940년 최고 재판소로 건축한 장엄한 건물로 입구에 사자상이 있다. 1984년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선사시대부터 1912년까지의 불가리아 중요 문화재를 전시하였으나, 2000년에 박물관이 이전하고 법원 건물로 사용 중이다.



◦ 알렉산더 넵스키 수도원

발칸반도 최대의 성당으로, 불가리아 해방에 적극 지원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와 희생된 러시아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네오비잔틴 양식으로 러시아 정교 교회 풍으로,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성화들로 채워져 있다. 지하에는 고대 및 중세시대의 불가리아 유물과 성화들이 전시되고, 성당 신부들의 유골들이 안치되어 있다. 1960년 러시아에서 기증한 20kg의 금으로 돔이 도포되어 있다.

※ 기타 시내 관광

- 성 네델라 성당(St. Nedelya Church)
- 공중목욕탕 (Mineral Baths)
- 성 페트카 지하교회(St. Petka Samardzhiiska Church)
- 소피아 여신상(St. Sofia Statue)
- 세르디카 유적(Ruins of Serdica)
- 대통령궁(President Palace)
- 국립문화궁전 (National Palace of Culture)
- 소피아 성당(St. Sofia Church)
- 성 니콜라이 러시아 교회(Russian Church)



VI. 현지 유관기관 안내

☐ 주 불가리아 한국대사관

- 주소 : 7A Fl.,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전화 : +359-(0)2-971-2181
- 팩스 : +359-(0)2-971-3388

☐ 한국인 운영 현지 여행사

- Angel Tour (대표 배성환)
 - 전화/팩스 : +359-(0)2-971-5173
 - 휴대전화 : +359-(0)879-991-339
- Utre (대표 박성태)
 - 휴대전화: +359-(0)87-999-1336

☐ 한국식당

- 윤 (Yoon)
 - 전화 : +359-(0)2-963-0365
 - 휴대전화 : +359-(0)879-991-337
 - 주소 : 34 Elemag Street, Izgrev, Sofia
- 코리아 (Korea)
 - 전화 : +359-(0)2-427-0251
 - 휴대전화 : +359-(0)-899-912-404
 - 주소 : 5 Prof. Georgi Zlatarski Street, Sofia

☐ 한인회 (회장 이승주)

- 휴대전화 : +359-(0)879-991-343



VII. 무역관 안내

☐ 무역관 직원 연락처

성명/직위	전화번호
박해열 관장	Tel: (359-2) 969-5030, (359) 889-311-578
정지운 부관장	Tel: (359-2) 969-5037, (359) 882-648-542
정순혁 차장	Tel: (359-2) 969-5035, (359) 889-216-118
Georgi Iliev (현지)	Tel: (359-2) 969-5031, (359) 888-465-666

☐ 무역관 약도



- 주소: B100, Interpret-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Tel: (359-2) 969-5030/31/32
- Fax: (359-2) 969-5033
- E-mail: info@kotra-sofia.org
- Web site: www.kotra.or.kr



참고사항

해외에서의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KOTRA입니다.

지난 9.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KOTRA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KOTRA 청탁방지담당관 올림



www.kotra.or.kr

